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달린 세계 속 부유(浮遊)하는 북한 공장노동자들의 목소리*

김화순**

이 연구는 2010년 이후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 자신의 선택과 역경의 행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고민과 갈등, 정동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장노동자 18명을 대상으로 1, 2차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산업공장의 노동자들이 생애과정에서 8.3노동자제도를 매개로 노동시장 노동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장의 간부에게 상납금을 내고 다른 공장들을 다니거나, 공장에서 노동시장으로 나가거나,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는 등의 다양한 이동행태를 보였다. 이는 국가의 노동이동 억압정책, 공식/비공식 부문 간의 상호의존성, ‘공식 → 83 → 비공식’으로 밀려 나는 생계방식의 단계적 추락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 부문 간 경계를 넘어 유동(mobility)하는 노동자들을 가리켜 “생존노동자 (Survival Job Worker)”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신가산제(Neopatrimonialism) 노동세계 안에 갇힌 채 마치 어항 속 물고기처럼 유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생애와 내면세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북한 공장노동자, 노동시장, 생존노동자, 지방산업, 노동 이동, 일공, 8.3노동, 주변노동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70127). 초고를 진지하게 읽고 성의를 다해 심사평을 써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 그리고 박형중 박사님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연구교수.

1. 공장노동자들은 왜 작업장을 빠져나오고 있는가?

오늘날 북한 공장 사회와 작업장에서 수많은 공장노동자가 떠나고 있으며 조용한 변동 과정에 처해 있다. 생산 현장 노동자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작업장 변동의 성격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를 이끌어 가는 애초의 문제의식이었다. 작업장 변화의 징후는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도 발견되는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024년 1월 11일 중국 소재 북한 정승 무역에서 2,000여 명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는 집단행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¹⁾ 보도 내용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그간 해외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강도가 높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그간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발생이 누적되어 온 사실조차 부정하기란 어렵다. 극도로 억압되어 온 공장노동자의 욕구가 ‘해외’라는 열린 공간에서 예외적으로 분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성을 부각하는 소재가 아니라, 201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장노동자의 외부로 ‘이탈 현상’과 연계해서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 “〈独自〉北朝鮮労働者が中国でスト・暴動 数千人規模を初確認 … コロナ禍で賃金不払い,” 『産経新聞』, 2024년 1월 19일,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119-F5K4USURTBP4HK3MCP2IJH6CPI/>(검색일: 2024년 3월 2일); “中国に派遣の北朝鮮労働者, 賃金ピンハネで怒り工場占拠ストライキ … 管理職に暴行で死なす,” 『読売新聞』, 2024년 2월 17일, <https://www.yomiuri.co.jp/world/20240217-OYT1T50010/>(검색일: 2024년 3월 2일). 그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성을 부각하여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었기에 파업에 관한 보도는 사실 여부를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일체화가 되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하려던 천 리마의 꿈이 사라진 지금, 오늘날의 공장노동자는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근 70여 년간 국가에 의해 강제됐던 노동력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개별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이 고난의 행군 이래 특히 2010년 이후 어떻게 진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미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북한 전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장노동자의 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환(an inevitable transition for survival)’인가? 아니면 강압적인 노동체제에 대한 행위자들의 목적의식적 저항이라고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뿐 아니라 이들의 의식 흐름을 더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당사자인 기층노동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시장화 이후 특히, 2010년부터 2019년도 현재까지 공장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게 된 동기과 이동의 양상을 밝히고, 공장노동자의 작업장 이탈 혹은 노동의 변형, 그리고 신노동자로의 전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기술(description)한다. 나아가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의 구술을 통해 강제화된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탈’했는지, 또 이탈이 의미하는바, 즉 노동이동 과정에 드러난 노동자 정동의 흐름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실 세계에서 북한 공장노동자의 이동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공장노동자 중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보상 없는 노동체제에서 벗어나 공장 외부의 노동시장으로 나가기 시작하였고, 공식 부문인 중앙산업, 지방산업, 정권기관, 군수공장 등 각 부문에 따라 보상과 식량배급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부문 간 노동자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2009년 말 화폐개혁의 충격 이후 공장노동자

의 이동도 더욱 활발해졌다. 그간 공장노동자의 이동이 연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자들의 관심이 시장화라는 거대 담론 그 자체에 맞추어져 있었고 노동행위자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10여 년간 학계의 관심은 시장화 이행 관련 논쟁,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비공식화가설(informalisation)’과 정치학자들이 제기한 시장화 현상이 계획경제 자체를 강화한다는 ‘계획경제가설’ 간의 논쟁에 쏠려 있었고,²⁾ 그다음 10년간은 김정은 시대의 변화와 제도변화에 온 연구 역량이 집중되었다.

이 연구는 작업장의 변화와 공장노동자 자신의 이동 과정, 그 과정에서 겪는 개인적 체험 특히, 전환기 노동자들의 행위와 정동(affection)을 관찰 범위로 한다. 그간 미시와 거시를 연계하여 북한 체제 변화를 탐구해 온 시장화 연구에서 주로 그려진 주민들이 주로 ‘저항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은 채 지배와의 거리 두기 방식’을 실천하는 주민들이었다면,³⁾ 이 연구는 공장을 떠난 생산 현장 기층노동자의 개인 생애 이야기를 통해 정동을 드러내 행위주체의 행위성을 더 온전하게 그리고자 한다. 2010년 이후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 자신의 선택과 역경의 행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고민과 갈등, 정동을 보여주는 것을 이 연구의

2) 김화순, “선행연구 메타분석: 성찰과 모색 그리고 도전,”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 이론과 방법론』(서울: 통일연구원, 2022), 76~80쪽. “정치학자들은 계획경제 가설을 경제학자들은 비공식화가설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3) 시장화라는 거시와 개인의 미시적 일상생활을 연계하여 연결고리를 파악하려는 견해를 밝히는 대표적 저술로는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통일연구원, 2008)을 들 수 있다.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통일연구원, 2008); 김화순, “선행연구 메타분석: 성찰과 모색 그리고 도전,”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 이론과 방법론』(서울: 통일연구원, 2022), 81쪽.

목적으로 한다. 공장노동자 아무개는 왜 공장 밖으로 나갔는가?(원인), 어떻게 나갔으며(이동 경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여 살아갔는가? 이 같은 질문은 국가의 노동자에 대한 피지배 억압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지난 30여 년간 진행/지연되고 있는 거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그 시련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일종의 생존담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시장화 뒤에 가려진 채 오늘날 북한 사회를 헤쳐 나가는 기층노동자 개개인들을 이해하고 교감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그들이 체험한 서사와 정동⁴⁾을 발굴하고 묘사하는 일에 분석이나 해석보다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의 제목인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는 닫힌 세상에서 시장과 비시장, 공식과 비공식 부문이 혼재한 채 뒤엉킨 노동세계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 내면의 속삭임이다.

이 연구는 신가산제하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포착하려는 일종의 발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행위자) 변화가 제도변화 문제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제도적 문화기술지 방법인 구술 → 텍스트 → 종합이라는 세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는 세 개의 논문을 쓸 예정이며, 이 논문은 행위자들의 구술을 통한 내면세계를 기술하는 첫 논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정동에 대한 묘사와 기술에 품을 들인다고 해서 이 연구가 입증하려는 주장이나 가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공(日工)’이라는 호칭으로 신(新)노동자의 등장을 제기한 차문석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비공식 노동 형태를 소개하고 일공의 존재나 양

4) 정동은 “신체 내부의 장기들이 반응하여 느낌을 만들어 뇌로 정보는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박민주, “북한 주민과 초상화,” 『북한연구학회보』(2023), 104쪽.

때, 영역, 임금의 결정, 일공 노동자 알선 등의 현상에 주목하였으나, 신노동자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경로에 관해 밝히지 않았다. 그 대신 차문석은 중국의 농민이 도시로 나와 농민공이 되는 사례를 통해 농촌으로부터 농민공이 등장했을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⁵⁾

이 연구는 ‘농민 일공’이 북한 노동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는 차문석의 시각을 비판하고, 공장의 8.3노동자 제도가 매개하여 ‘공장노동자가 노동시장 신노동자의 주 공급원이 된다’라는 가설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공장 노동자 중에서도 노동자의 이탈이나 8.3노동자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군수공업이나 노동자에 대한 배급과 보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당경제 산하 공장·기업소들과는 달리, 배급이 없고 출근규율이 무너진 인민경제 산하 지방산업 공장에서 유출되고 있는 8.3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신노동자들의 주공급원이라고 가정한다.⁶⁾ 이 같은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상황의 배경으로 박형중의 ‘사회주의 신가산제 시장’을 전제한다. 현재 노동세계는 공장/공식부문의 사회주의근로자 의식과 시장/비공식부문의 임노동자 의식을 나누어 파악하고자 하는 이원적 혹은 단계적 구분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노동세계는 정치권력에 의한 분절적이고 다양한 기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⁷⁾ 노동자들은 공장과 시장 두 개의 세계로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

5)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일공)과 혼종성: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2020), 165~166쪽.

6) 대부분 통일시 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북한 내부의 노동 이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2017). 이 논문은 탈북 이전 탈북민들의 노동이동을 연구한 사례연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국영경제에서 주로 비공식 국영경제나 공식시장경제, 비공식시장경제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게 구분될 수 없는 혼재된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짜집기(patchwork)해서 살아간다.

2. 연구의 관점: 연구모형과 구술자료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존재에 처음으로 주목한 박영자는 이를 ‘주변노동’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일당제 노동, 농업 품삯노동, 서비스업 등”에서 “시장 규찰대, 소토지 생산자, 소작인, 가정부, 페인트공, 대리동원 노동, 개인교사, 샛군, 외화벌이 고용원 등”이 이 노동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주변노동이 나타난 시기를 2002년과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 당국의 부분적 시장경제 인정과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 확장 이후라고 보았다.⁸⁾

-
- 7) 이는 과거 ‘계획에서 시장으로 체제 이행’(이행론)적 시각과는 달리 이 연구는 북한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 상황을 박형중이 제기한 ‘사회주의 신가산제 시장’을 배경으로 전제한다. 박형중은 ‘사회주의 신가산제 시장’이라는 거시적 구조와 연계하여 미시적 직장생활을 설명하고 기업신분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박형중 외, 『북한주민의 직장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23), 동 저술에서 김화순은 기업부문별로 기업신분제가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관철되는지를 배급실태를 통해 살펴보았다(김화순, “제 4장 공장의 나날들: 작업장 풍경과 인민들의 직장생활,” 박형중 외, 『북한주민의 직장생활』(통일연구총서, 2023);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 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2009); 박형중 외,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 8)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3호(2009), 155쪽. 박영자는 Rothman의 기준에 북한 상황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보편적 주변노동으로 ‘불법적 사회적 목인 노동’(다양한 일당노동, 대리동원·소작·품삯 노동, 자영업·방문장사·보따리 밀수 등)과 넷째에 해당하는 ‘불법적 사회적 일당노동’(매춘·도박·마

박영자가 2000년대 초반에 장마당과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주변노동’라고 불렀던 것⁹⁾과는 달리, 차문석은 2010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는 개인노동자들의 존재를 신노동자 혹은 ‘일공’이라고 호명하고 “북한에서 일공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며 ‘시장노동자’로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¹⁰⁾이라고 정의하였다. 시장이 부정되는 북한에서 일공은 특수한 존재이며 계획경제 외부에서 유동하는 존재로서 일공(日工)은 ① 공장의 8.3노동자, ② 외화벌이 회사에 고용된 시장노동자, ③ 농촌 출신의 시장노동자, ④ 학생이나 여성 아르바이트식 노동의 네 가지 양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¹¹⁾ 이는 박영자가 2000년대 초반 시장을 공간으로 하여 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당노동이 주변노동이라고 정의하고 “불법적 사회적 묵인 노동’(다양한 일당노동, 대리동원·소작·품삿 노동, 자영업·방문장사·보따리 밀수 등)”과 “불법적 사회적 일탈 노동’(매춘·도박·마약)”의 두 가지로 분류했던 것보다 차문석은 더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¹²⁾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개인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한편, 일공(ilgong) 내 범주를 구분하는 데 있어 노동력의 공급원(공장, 농촌)이나 고용처(외화벌이

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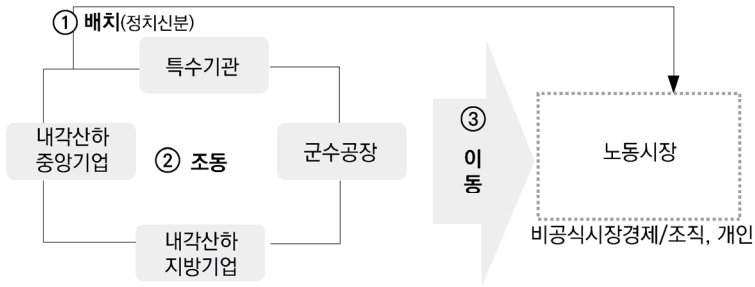
- 9)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155~156쪽.
 10)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일공)과 혼종성: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162~163쪽.
 11)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일공)과 혼종성: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162~163쪽.
 12)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155쪽.

회사)를 두 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1) 연구모형: 신가산제에서 노동이동에 따른 노동자 의식변화

본 연구의 관점은 특정한 이론에 맞추어 복한 노동자들의 활동이나 양상을 해석하지 않고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한다. 제도적 문화기술지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정교한 개념들을 통해 미시와 거시를 ‘조직화’하는 데 있다.¹³⁾ 시장화라는 거시적 변화와 노동자의 미시적 생활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문제틀(problematic), 입장(standpoint), 일 지식(work knowledge), 텍스트(text), 제도적 담론, 조정(coordination), 사회적 조직화(socialorganization), 실제(actualities), 지배관

〈그림 1〉 연구모형: 신가산제에서 기층노동자의 노동이동과 의식



13) 도로시와 그의 동료들은 지난 30여 년간 제도적 문화기술지에 대한 경험연구를 해 오면서 2005년에 이르러 연구방법론을 집대성하였다. 도로시 스미스(Dorothy Smith), 『제도적 문화기술지: 사람을 위한 사회학』, 김인숙 옮김(서울: 나남, 2014). 제도적 문화기술지에서 경험은 사회구조와 행위가 응축된 지점이다. 사람들의 경험에서 제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시작되 미시와 거시를 연결하는 개념적 도구들을 사용한다.

계(ruling relation) 등의 개념적 도구를 사용하되, 이 연구는 특히 행위주체인 노동자의 정서와 감정, 행위, 신체와 의식세계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공장 노동의 위계에서 최하층에 있는 '막노동자'라고 불리는 육체노동자들(manual workers)의 노동이동과 의식을 연구하며, 이 연구에서 이들을 편의상 '기층노동자'라고 호칭한다.

연구모형에서 행위자의 환경인 경제부문은 다섯 부문으로 추상화한다. 내각산하 국영기업(① 중앙기간산업, ② 지방산업), ③ 정권기관(중앙당, 보위부, 보안부, 군부, 보위부 등) 산하의 공장/기업소, ④ 군수공장, ⑤ 비공식 시장경제의 조직/개인이다.¹⁴⁾ 연구모형은 사례 분석을 위해 노동자의 이동행위(배치→조동→이동)를 흐름도로 제시하였다.¹⁵⁾ 제도적 문화기술지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개념은 입장(standpoint)과 문제들(problematic)인데, 관심 주체의 입장과 문제들을 먼저 설정한 후 이를 통해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한다. 각 사례들은 이동경험에서 차이를 보이는 데 이러한 차이야말로 노동사회 전체의 큰 그림(Big picture)을 완성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 연구는

14) 이러한 기업의 유형화는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박형중이 분류하고 김화순이 사례 분석한 결과에 의거한다. 박형중·정은미·김화순, 『북한주민의 직장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23).

15) 첫째, <조동, 調動>: 고난의 행군이전 시기에 비해 2000년대의 조동은 매우 빈번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동의 양상도 다양하다. 공장사회에서 조동은 왜 빈번해졌으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둘째, <노동이동, mobility> (내각산하/정권기관산하)공장에서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공장노동자들이 2010년 이후 분화와 재분화를 거듭하면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며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일당 노동자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공장노동자들이 전환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의 경우와 같이 농민이 도시로 와서 일당노동자로 바뀐 것인가? 즉,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세라고 일컬어지는 일공(日工)의 원천(原泉)의 문제이다.

경영인, 행정간부, 당간부, 사무직, 노동행위자 중에서도 생산 현장의 기층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standpoint)'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노동이동 경험에 배태된 사회적 조직화와 지배관계를 간파하고 노동자 정동의 흐름을 기술하였다. 여기서 문제들은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설정되며, '조동(調動)'과 '이동(移動, mobility)'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조동'은 '이동배치', '전속'의 북한말로써, 국가를 주체로 하여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에서 원칙적으로 노동력 배치는 국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식부문 간 이동 즉, 사회주의계획경제 내부에서 국가에 의한 이동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이동'이란 공식부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비공식부문(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이동은 조동보다 더욱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으로 여겨지며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이동을 두고 갈등한다. 이 연구는 노동자의 공장 이탈의 증가로 상징되는 작업장 변동 및 노동자 정동의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

〈기층노동자의 입장과 문제들, 일지식〉

첫째, 배치: 직장에서 나의 첫 시작은 어떠한가?

부모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직업지위)은 첫 직장(기업신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사회적 담론/공장노동자 체험과 의식〉

둘째, 이동과정에서 갈등

나(노동자)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조동과 이동과정에서 행위자의 갈등과 선택

① 조동의 단계(다른 직장), ② 이동의 단계(노동시장),
나(노동자)는 왜 공장을 떠나려고 하는가? 어떤 갈등을 경험하
는가? 이동 시 나를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조동과 이동: 이동의 목표, 기대, 방향

내가 이동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기대를 달성하였나?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사회적 지배/신노동자 정체성〉

넷째,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결과와 기대

국가와 노동자의 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돈주-일당노
동자)

나(노동자)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노동시장에서 정체
성은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이 일을 통해 정체성
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이 연구의 참가자는 학교 졸업 이후 공장에 입직하여 일하다가 공
장 외부 노동세계로 이행한 1960년대~1990년대 사이에 출생한 공장
노동자들이다. 공장 출신 연구 참가자들에게 직업 생애 경험을 질문하
고, 구술을 채록하였다. 노동자의 노동생애를 통해 전환기에 처한 북
한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떤 진로 선택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계기에 의해 사회주의 근로자로서 가졌던 노동정체성
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장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취하는가?¹⁶⁾
나아가 기층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시

간이 갈수록 국가와 노동자(행위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¹⁷⁾와 같은 질의들이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 수집의 한계상 이는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2) 구술자료: 북한 노동자들은 말할 수 있는가?

연구자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1950년대~1990년대에 출생한 18명의 공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1차 면접하였다. 다시 2024년 1월까지 1차 연구참가자 중 간부나 사무원을 제외하고 생산현장의 기층노동자들(the lower classes of the working class)만을 총 7명 선별하여 2차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1차 연구참가자들의 인적 특성 및 직업경로, 최종 직업은 다음과 같다. 피면접자의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가 1명, 1960년대가 5명, 1970년대가 2명, 1980년대 5명, 1990년대가 5명으로 총 18명이다.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해

16) <출신성분과 계층> 이러한 복잡 균중이라는 태생적인 계층 계층은 출신 성분과 토대 등은 이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부모와 국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예측할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사회주의 노동계급 정체성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이세영과 윤철기가 있다. 이세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윤철기, “북한 시장화이후 계급체제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2016).

17) 연구의 당초 계획은 돈주들의 경영 참여가 양성화되고 공장노동자의 이동과 분화가 촉진되면서 사적 고용상태로 놓이게 된 노동자들은 사회주의근로자를 대체하는 어떤 정체성으로 전환하였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 일한 연구참가자 사례가 수집이 소수에 그쳤고, 공장을 나오는 이동과정의 서사가 길어 노동시장에서 피고용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은 다음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1〉 2차 추가 심층면접 연구참가자(기층 노동자들)

번호	출생 연대	젠더	이름	탈북 연도	성분	직업	당원	면접 횟수	시간
1	50년대	여성	영실 모친	최근 5년 내	복잡	교사 (노동자가족)	×	1	3
2	60년대	남성	한문길	5년 내	기본	노동자	×	2	6
3		남성	임정신	5년 내	기본(전쟁)	노동자	×	1	3
4	80년대	남성	혁철	5년 내	복잡	밀수/운전사	×	1	3
5		남성	신철	5년 내	복잡	노동자/밀수	○	2	6
6		여성	한영실	5년 내	복잡(해외)	노동자	×	4	10
7	90년대	남성	상호	5년 내	복잡(교화소)	개인노동자	×	1	3
	총시간								34

오던 이들을 연구참가자로 선정하였기에 여성은 연구 참여자 18명 중 3명에 불과하다. ① 2010년 이후 북한 공장기업소나 노동시장을 최소 3년 이상 경험한 노동자, ② 공장을 나와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③ 비대졸자 기층 노동자의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1차로 18명의 연구참가자를 면접한 이후, 다시 이들 중 생산현장의 기층노동자 7명을 선별하였다. 7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총 34시간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면접자인 18명의 연구참가자들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대졸 출신 근로 인텔리나 간부들과 비교하여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연구참가자들은 언변이 없고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설명하는 표현력도 약하였다. 아버지(사례 2: 문길), 어머니, 아들(사례 7: 상호), 딸로 구성된 한 국경연선 지역의 한 노동자 가족을 만난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혁신노동자의 자손이었던 한문길은 공장의 평노동자로 평생을 살았다. 아버지 문길이 비법행위로 교화소로 가고 생계가 더 어려워지자 아들 상호는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시장에 나가 조개 줍기, 약초 캐기 등의 여러 가지 별이를 하면서 십 대 초반을 보냈다. 상호는 북한 사투리도 심할 뿐 아니라 자신 없는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말해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았고 주어의 생략이 많아 연구자는 상호 군과 소통 시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 문길을 면접한 후에야 그들의 가족 생애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노동자 가족을 심층면접한 결과 얻은 정보가 너무 적어 연구자는 이 면접 이후 노동자 면접보다 대졸 출신 기술자나 간부들을 인터뷰하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다. 대졸 출신 근로 인텔리(intelightsia)들은 기층 노동자들과는 달리 연구자의 질문 의도를 잘 파악했고 동일한 시간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많았으며 표현 능력이 뛰어났다. 간부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더욱 빨라 동일한 시간에 일반 노동자에 비해 무려 2~3배 되는 정보를 쏟아내었다.¹⁸⁾ 이는 기층 노동자들의 구술이 면접시간에 비해 적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질문과 답변이 똑똑 끊기는 현상과 대비되었다. 연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나는 애초에 기층 노동자들의 이동과 일당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중심이었던 당초의 연구설계 방향을 바꾸어 ‘근로 인텔리의 이동연구로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랜 숙고 끝에 애초의 연구설계대로 7명의 기층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2차 추가 심층 면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 방향을 잡게 된 데에는 2023년 말경, 공장에서 십수 년간 일해 온 여성 노동자(사례 6: 한영실)와 그 모친을 만난 경험이 계기로 작용하였다. 80년대생 한영실은 공장에서 칭송을 받으면서 일해 온 고성과 노동자였는데, 그녀는 연구자들이 공장 규모나 근무 조건 등 세부적으로 물

18) 60년대생 남자, 행정간부(본 연구 1차 참가자 중 사례 A, 사례 B).

어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하였다. 일하는 데 바빠 자신이 십수 년간 일했던 공장의 생산구조나 운영 등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장 노동자 수가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모른다고 스스로를 자책하였다. 영실은 그 대신 하루에 열여섯 시간씩 일했던 자신의 고된 노동 경험과 하루에 대해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좁은 공간 속에서 1년 중 362일 동안 하루 16시간을 정신없이 일만 하던 한영실의 상황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스피박의 책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¹⁹⁾를 읽고 나는 연구자라면 북한 노동자의 진실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그 말을 읽어 내야 하며 노동자 자신이 처한 구조적 체계를 어떻게 부수고 고민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 찾아내야 한다는 메시지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는 북한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정보, 취하기 쉬운 용이한 정보만을 취해 연구하는 습관에 어느새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말하게 만들 것인가.

여성 노동자 한영실과의 만남은 연구의 방향을 다시 말수가 적고 자기 표현력이 약하지만 북한 노동사회의 최하층에 위치한 기층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생과 그들의 자녀세대인 80년대생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2차 심층 면접에 들어가게 되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1월 사이에 기층노동자와 가족을 추가 면접하고 녹취하였다. 50~60년대 출생한 노동자와 80~90년대 출생한 노동자들의 관계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관계를 구성하므로 이들 부모-자식 세대 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세대적 차이를 더 깊이 들여다볼

19) 로잘린드 c. 모리스(Rosalind C. Morris)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 옮김(서울: 그린비, 2013).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연구참가자에는 한영실과 50년대생 영실의 어머니, 60년대생 문길과 90년대생 문길의 아들 같은 노동자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 가족들이 공유하는 노동의 경험과 기억의 차이를 통해 공장노동자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북한 노동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 80년대생의 공장생활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3. 공장노동자의 노동이동과 정동: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 60년대생 두 노동자의 이야기: 노동생애와 이동

(1) 전쟁고아 집안 출신의 노동자 임정신의 이야기

노동자 임정신은 전쟁고아인 아버지에게서 1960년대 초반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임정신의 아버지는 한평생 2급 기업소에서 공장 노동자로서 일하다 작업반장까지 승진하고 정년퇴직한 충실한 노동계급이다.

임정신은 ‘노동자의 자식은 노동자가 되고, 간부의 자식은 간부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가족 생애사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와는 다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 당국은 전쟁 피해자들을 상층으로 만드는 계층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노동자 임정신의 형제와 자매들은 모두 아버지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로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임정신 가족의 직업가계도를 살펴보면 이 점이 드러난다.²⁰⁾ 임정신의 고등중학교 학교 성적은 학급 50명 중에 중간 정도를

20) 첫째 아들은 농촌 상사 지도원이 되었다. ... (중략) ... 이처럼 노동자이며 전쟁

차지하는 정도였는데, 임정신 본인은 형제 중에서 가장 출세하지 못한 아들로서 평노동자로서 사회적 지위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임 씨가 다른 남자형제들처럼 상향이동하지 못한 채 결국 평노동자로 끝났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노동자 임 씨의 1970년대 후반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의 첫 시작은 매우 순조로웠다. 그는 다른 동무들과는 달리 군대생활이 아니라 안전부에서 근무하면서 집에서 출퇴근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부 경력까지 쌓을 수 있었다. 임정신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고아 집안이라는 출신성분과 하자 없는 토대, 거기에 아버지의 연줄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임정신은 안전부 근무 7년 만에 자유주의 과오를 범했다는 이유로 중도에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면서 임정신의 진로는 비틀리게 된다. 그는 입당조차 하지 못하였다. 면목이 없어진 정신은 아버지의 공장을 피해 동무의 형이 노동지도원으로 있던 압연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신은 밖에 돌아다니는 일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석탄을 인수하러 외부에 돌아다니는 일을 맡았다.²¹⁾ 정신은 첫 직장에 들어간 1983년도는 북한사회나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던 시대였으므로 공장에는 생산할 수 있는 자재도 있었고 노동

고아였던 임정신 일가는 큰 권력이 없고 대학 대졸자도 없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정신 일가들은 아버지의 사회성분인 노동자보다 더 나은 사무직이나 간부직까지 상향이동하였다(2021년 2월 3일, 임정신 필자 면접).

- 21) 임정신의 처남도 이에 해당하는데 그는 목수 일을 하고 싶어 제재 공장을 가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임업 기계에 배치되었다. 만약 그가 담배 한 막대기 정도의 뇌물이라도 고였다면 처남은 자신이 원하던 제재 공장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목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 군인들은 아직 그런 세상물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가 나무 다루는 일을 하고 싶었던 그의 소망과는 달리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되었다(2021년 2월 3일, 임정신 필자 면접).

자들에 대한 배급도 좋았다. 임 씨는 당시를 돈의 가치가 없었고 노동자들은 배급 하나를 위해서 출근하였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²²⁾

첫 번째 조동(調動): 고난의 행군 당시 압연공장을 떠나 군수일용직장에 가다

압연공장에서 잘 지내 오던 임정신이 공장을 떠나게 된 이유는 고난의 행군으로 밀어닥친 배급 중단 사태 때문이었다. 정신의 공장은 1990년도경부터 배급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19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 배급이 완전히 끊기기에 이른다. 1960년대생 임정신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였나?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임정신은 공장생활과 밀수를 병행하여 생계를 근근이 유지하였다. 임정신은 북한의 동(銅)과 명태하고 낙지 등을 중국에 가지고 가서 팔고 다른 물건을 들여오는 밀수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밀수 일은 임정신의 성격에 잘 맞지 않았던 것 같다. 임정신은 배급을 주는 공장을 찾아 ○○기계 지도원이었던 동네 사람의 소개로 1999년도에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주는 ○○기계 군수 일용직장으로 옮기게 된다. 임정신이 압연공장에서 익혔던 기술은 그가 군수일용직장으로 옮기는 데 힘이 되었다.

22) 임정신이 출신 성분이나 토대가 가지고 있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평생 평노동자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군 시절 과오로 인한 제대와 이로 인해 입당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021년 2월 3일, 임정신 필자 면접).

2차 조동: 군수일용직장을 나와 해외 파견노동자를 향해

그렇지만, 임정신은 군수일용직장에서 다시 2차 조동을 단행하였다. 임정신이 군수일용직장에 들어간 1999년 첫해에는 본인과 가족식량까지 주었으나, 그다음 해인 2000년부터는 본인 식량배급만 주면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당초의 타산과는 달리, 군수일용직장에서 주는 식량배급만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이 먹고살 수 없었다. 이에 임정신은 더 나은 직장이 없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 2000년대 초반은 북한 사회에 해외에 나가 돈을 벌자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기였다. 임정신은 자신도 남들처럼 소련이나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자는 생각을 했으며, 러시아나 해외로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군수일용직장을 나와 대외건설 사업소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것이 임정신의 두 번째 조동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다. 외국으로 나가려면 상당한 뇌물을 써야 했는데, 임정신의 형편으로는 이 비용을 마련할 수 없었다. 뇌물을 주지 못하는 그에게 해외에 나갈 기회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임정신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러시아 진출을 포기하고 2009년경 다시 목장으로 직장을 옮겨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기로 한다. 그러나, 목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가족이 1년 먹을 식량을 생산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임정신 부부가 근근이 생계를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탈북한 딸이 그들 부부에게 비밀리에 보내 주던 송금 덕이었다.

(2) 로력영웅의 아들이 무직자(the jobless)로: 노동자 문길 가족 이야기

노동자 문길의 부모는 모두 공장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혁신노동자들이었다. 문길의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사람들을 살려낸 로력영웅으로 전국 당대회에 10년간 해마다 참석한 중요인물이었다. 문길은 자신이 십 대였던 1970년대 중반 시절 아버지가 전국대회에 나가 '색

텔레비존'을 선물로 받았던 일과 그로 인해 온 동네가 부러워하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때부터 전국 당대회에 나가기 위해 온갖 사업을 하는 좋지 못한 작풍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문길은 이를 '문건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빼앗아 당대회에 나가는 등 복한 사회는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한다. 결국, 문길의 아버지는 노동자로서 로력영웅 칭호를 받아 2급 공장의 부문당비서까지 했건만 유급간부로 올라서지는 못하였다.

배운 게 없어 유급간부로 승진하지 못한 한 때문인가. 로력영웅이던 아버지는 문길에게 대학을 가야 한다고 어린 시절부터 늘 강조하곤 하였다. 그러나, 문길과 문길의 형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문길은 아버지에게 얻어맞으면서도 학생 시절부터 몰래 피는 담배에 취미를 붙였고, 성적은 학급에서 꼴찌를 겨우 면한 정도였다. 고등중학교 졸업 직후 문길은 바로 군대로 갔으나, 군대에서 문길은 부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군대를 나와 영예군인으로 삶이 시작되었다. 문길은 1988년부터 주거 지역의 영예공장에 배치되었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는 91년경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하였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문길의 아버지는 공장 비생산기지의 후방사업을 지원하여 목축과 농사를 시작했고, 문길 역시 배급을 주는 군부대 산하의 군수직장으로 기민하게 자리를 옮겼다. 그렇지만, 군수직장에서 받는 약간의 통강냉이 배급으로는 문길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었다.

결국, 노동자 문길은 군부대 산하 작업반에 일하면서 은밀하게 불법적인 사업에 손대게 된다. 그 일은 바로 국가에서 범죄행위라고 규정된 '이산가족 찾기'사업이었다. 문길은 중국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남한에서 온 친척들과 만나게 하는 일을 하였다. 문길은 이 일로 몇 번 돈을 벌었지만 결국 꼬리를 잡히면서 2010년 1년간의 교화형을

선고받기에 이른다.

세대주인 문길의 교화소행은 그들 가족 모두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문길의 아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생계를 이어 가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문길의 범죄행위로 인해 온 집안이 기본군중에서 복잡군중으로 일거에 전락하게 되었다. 설사 자식들이 대학 진학을 할지라도 이젠 간부로 출세할 수는 없으리라. 게다가 문길의 교화소행으로 인해 가정이 더욱 빈궁해지면서 십 대 초중반의 문길의 딸과 아들까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일당 노동자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전선'에 나서게 되었다.

문길은 비록 교화소에서 1년 만에 나왔지만 그 1년의 시간은 건설한 노동계급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과 생각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다. 문길은 공장에 적을 두지 않은 채 무직자그룹빠(무직자를 감시하는 비사회주의 단속반)에서 일하는 지도원에게 돈을 먹이고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약초 채취나 개인사업자 밑에서 차 세척 등을 하였다. 소를 키우기도 하고 오갈피 껍데기를 벗기는 등 닥치는 대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 나갔다. 교화소를 다녀온 문길이 택한 길은 특정한 공장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아가는 무직자의 길이었다. 문길이 없는 동안 딸과 아들도 어머니를 도와 사금을 채취하고 밀수 짐을 날랐는데, 큰딸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직후 중국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탈북해 버렸다.

이제 문길과 문길의 가족들은 과거 로력영웅이며 사회주의근로자로서 자부심에 찼던 조상의 공장을 떠나 노동시장에 나가 일당 노동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3) 60년대생 노동자 문길과 정신, 2차산업에서 1차산업으로

196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 임정신과 문길은 북한 당국이 중시한 전쟁피해자와 로동계층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출신성분과 토대를 가지고 있었다. 둘 다 1980년대에 첫 직장에 들어가서 수년간 동안 공장에서 배급생활을 경험했으나, 1990년대 초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게 되었다. 고난의 행군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장사나 사업을 통해 생계를 영위했던 것처럼 그들은 공장을 나와 장마당이나 밀수를 해서 생계를 영위하였다. 그렇지만, 정신과 문길은 다시 공장에서 배급받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군수직장으로 들어가서 배급생활로 생계를 영위하려고 하였지만 군수직장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행군 이전과는 달리 가족의 식량까지 주지는 않았다. 그런 이유로 임정신은 해외로 나가 돈을 버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소토지 농사 일로 생계를 영위한다. 로력영웅의 아들인 문길의 모습은 더욱 곤궁하다. 불법적인 <이산가족 찾기> 사업으로 범죄자의 낙인이 찍힌 후 집으로 돌아온 문길은 공장에 속하기(籍)를 포기하고, 채취나 중국에서 나오는 소소한 부업 등을 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다. 문길은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는 공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노동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일감을 찾을 수 없어 노동시장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문길 가족의 생애사는 천리마시대에 빛나던 로력영웅 노동자의 자녀와 손자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당노동자로 일하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형 노동자로 극적으로 전락해 버린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

요약하건대, 60년대 초반과 후반에 탄생한 기본계급 출신의 두 남성 세대주 임정신과 문길 가족의 생활사를 보면, 두 사람은 전쟁고아

와 혁신노동자 집안에서 출생한 출신성분이 좋은 노동계급이었으나 공장에서 '먹을 알' 있는 자리로 들어갈 만한 권력이 없었고,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도모할 만한 시장적응력도 없었다. 결국 임정신과 문길은 군수 직장에 들어가 배급받는 노동자로 살아가고자 하나 식량 배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대안을 모색하다 소토지 농사나 약초채취 등 1차산업 종사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한다. 그러나, 가족이 필요한 식량의 일부만 해결할 수 있을 뿐이었다. 2차산업에서 농업이나 채취산업으로 이동하여 가족의 식량을 직접 조달하는 정신과 문길의 행태는 시장적응력이 취약한 중고령 공장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도모하였는지 일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고난의 행군이후 맞이한 새 세상: 80년대 출생한 세 노동자들이 경험한 노동이동과 순환

80년대생들이 맞이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전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었다. 시장화가 전개된 이후 그들이 들어간 공장은 이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과거의 공장이 아니었다. 군수공장이 계획경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정권기관 산하의 기업소와 기지, 수많은 생계형 장사와 소규모의 가계생산, 민관 합작의 기업과 유통, 부동산 거래 등 사회주의 신가산제 시장이 펼쳐진 세계였다.

단위 간/공장 간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수출 부문 지방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한영실, 지방산업 기업소에서 인수원으로 일한 신철, 밀수 일로 번 돈을 바탕으로 군부 산하 외화벌이 기지의 운전수로 들어간 혁철, 세 명의 이야기는 수출, 지방산업 공장, 정권기관 산하 외화벌이 기

지를 무대로 80년대생들이 십여 년간 경험했던 노동이동은 공장 기업소의 현실을 일부나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개인의 노동사는 다양한 이행경로를 보인다. 공장에서 노동시장을 향해 떠밀리듯 이행(transition)하는 노동자와 닫힌 세계에서 나가지 못한 채 떠돌이 일공으로 부유(floating)하거나, 시장에서 돈을 벌어 공장/기업소의 ‘먹을 알’ 있는 일 자리를 구매하기(simony)도 한다. 이제부터 80년생들의 직업생애와 노동이동 과정에서 겪은 정체성 변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하자.

(1) 준마처녀 한영실의 “물 위에 뜬 깨알 같은 내 인생”

80년대생 한영실은 일 년 내내 결근 없이 생산량 300%를 달성하여 준마처녀의 영예를 3년간 차지한 공장에서 손꼽히는 고기능 노동자였다. 국가가 준마처녀에게 주는 보상이나 인정이 단지 ‘결발림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영실이 3년째 준마처녀의 영예를 안은 자리에서였다. 준마처녀가 되기 위해 1년 362일 내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하루 16시간씩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 일하였던가! 영실은 준마처녀에게 수여한 포상 선물을 열어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침 7시부터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죽으나 사나 내가 맡은 공정은 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매일 저녁마다 식사도 없이 바케쓰²³⁾의 물

23) 한영실: 바케쓰가 10kg이 되는데 얼마나 나가서 그 물을 퍼먹는지 물을 한 번을 떠다 놓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한국처럼 잘살아서 정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바케쓰를 이렇게 식탁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 놓고선 퍼먹는데 바케쓰 물을 세 번, 네 번 갖다가 퍼 봐도 물 먹으려고 하면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배로 물을 채우고 일을 하니까는 (중략) 배고플 때 물 한 바가지 먹으면 그래도 좀 허기가 좀 방지되거든요.

연구자: 근데 현장에 몇 명이 일하는 데 30kg 정도 되는 물이 소비되나요?
 한영실: 네~, 교수님 배가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우는데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로 배를 채워 가면서 귀에서 고름이 질질 나면서도 일했던 대가가 이
형광색 나는 오렌지색 옷감이라니! ‘꽂지 없는 소새끼’처럼 부려 먹은
대가가 겨우 이 건가? 영실은 속이 부글거렸다. 그 천은 옷을 해 입고
어디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촌스러웠다. 속보판에 이름이 뜨고 ‘아무개
작업반의 아무개 양처럼 일하라.’ 그 칭찬의 말에 너무 좋아 가지고
일했던 게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준마치녀 포상 선물이 영실에게 준 충격은 공장을 떠나 새로 생긴
정권기관 산하의 공장으로 옮길 결심을 하는 방아쇠가 되었다. 그러
나, 국가는 노동자들의 이동을 강하게 속박한다. ‘적(籍)’이라는 속박에
묶여 있기에 그녀는 다른 공장에 들어가 정식 노동자가 될 수 없었다.
영실은 보수가 좋은 다른 공장으로 가더라도 2~3달 후에는 국가가 배
치한 원래의 공장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이는 영실뿐만 아니라 그 지
역에서 ‘떠돌이 일공(floationg ilgong)’이라는 불리는 그 지역 고기능 노
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 영실과 동료 일공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존재를 ‘물 위에 뜬 깨알’이라고 부른다.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존
재. 왜 나는 멍청할까? 왜 나는 안착하지 못할까? 영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안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일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비참
하다고 느낀다. 이 같은 자기비하적인 자화상과는 달리 영실은 아름답
고 온 공장이 알아주는 일 잘하는 고기능 준마치녀였다. 영실은 수입
이 더 나은 다른 공장에서 1년에 서너 달씩 일하는 대가로 자신의 적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근할 때까지 몇 번씩 나가서 물을 배를 채우거든요.
작업반 인원이 30명 정도 돼요.…… 배가 고프니까 갈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물을 2컵씩 마시곤 했던 기억이 나요. 물을 마시면 배고픔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물 많이 마시고 화장실 들락거리니까 반장이 물 마시는 것도 뭐라 하곤 했어요.
(사례: 한영실, 2024년 4월 23일, 필자 비대면 면접)

(籍)이 있는 공장의 노무과장에게 번 돈의 절반가량을 매번 바쳐야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공장으로 일공을 단속하러 나오는 비사그룹빠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하는 비법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국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메여 있는 존재이다. 영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여덟 명의 언니들도 동일한 직종에서 떠돌이 일공으로 일했는데 영실은 그 언니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고 울적해졌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도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이 공장저 공장을 떠도는 여성노동자들과 밤늦게 어머니의 공장으로 찾아와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내가 벌여 오는 쌀을 포기할 수 없는 남편들. 영실은 평노동자와 결혼해서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처지가 되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실제로 떠돌이 일공으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자 떠돌이 일공생활을 그만 두고 원공장으로 돌아가는 같은 동네 언니들도 보았다. 일공으로 남의 공장에 가서 비법적으로 일하면 남보다 좀 나은 보수를 받았지만 다른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했다. 영실의 경우, 원공장의 간부에게 자신이 버는 돈의 절반을 지속적으로 매달 상납해야 했기에 남 보기에는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영실이 버는 돈은 많지 않았다. 영실은 국가가 배치한 원공장을 떠나 보다 보수가 나은 정권기관 산하 공장으로 소속을 옮기기를 바랐으나 국가는 영실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700g을 받는 노동자'(제적 노력)가 소속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공장 간부들의 허락을 얻는 다단계의 복잡한 절차가 있었고 뇌물을 내고 간부들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 영실은 그 정도의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일 잘하는 영실을 원래 공장에서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없고 소속을 옮길 만한 돈이나 권력, 연줄도 전혀 없던 영실은 원

공장의 목줄(적)을 찬 채 이 공장, 저 공장을 1년에 몇 달씩 전전하다 다시 원공장으로 돌아가는 떠돌이 일공으로 일했다. 영실은 하루하루 남모르는 고민을 안은 채 웃음 없이 찡그린 얼굴로 살아갔다. 공장생활을 청산하고 시장으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드디어 영실이 자신의 공장을 빠져나와 노동시장에서 일할 자유를 얻게 된 때는 공장에 입직한 지 무려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이후였고, 떠돌이 일공으로 일한 지 10년 후였다. 영실은 그동안 모은 돈을 공장 간부들에게 상납하고 간신히 공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영실은 공장을 떠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견디어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으로 떠난 이후 영실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영실은 공장에서 놓여나는 대신 여맹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여맹이 부여하는 각종 의무로부터 놓여나는 대신 여맹위원장에게 매달 300위안이나 내게 되었다. 300위안이라는 돈은 다른 성인남성 노동자에 비해 아주 큰돈이었지만 영실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마처녀 영실의 뛰어난 일솜씨가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족쇄가 된 것인가. 이 같은 큰 액수의 상납금은 장마당에 들어간 후에 그녀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고 영실은 돈을 벌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영실은 때로는 일 잘한다고 칭송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장의 나날들을 그리워하곤 하였다. 그러나, 영실은 공장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2) 청년 노동자의 도강(渡江)일지: 생존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다

하루 16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쌀 20kg의 식량배급을 받는 공장에 소속된 영실의 갈등이 ‘공장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문제인 반면, 식량배급이 전혀 없는 지방산업 기업소에 다니는 청년 신철의

고민은 ‘기업의 자산을 활용하여 내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신철과 그의 또래들은 10대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공장을 지키던 그들의 아버지들이 중국에는 ‘한생’²⁴⁾을 끌고내고 국가에서 주는 것 없이 세상에 빈 몸으로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그래서인지 신철을 포함하여 80년대에 태어난 신철 또래들은 공장에 들어갈 당시부터 공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공장에 들어가 내 실속을 어떻게 채길 것인가의 방도를 생각한다.

87년생 신철은 두 번의 공장생활을 거쳐 세 번째 8.3노동자로 밀수 일을 하게 되었다. 신철은 첫 직장을 아버지의 공장장에서 시작하였는데 그는 당비서의 배려로 도강경비를 하는 ‘먹을 알’ 있는 자리를 받아 ‘오늘은 얼마나 벌어 볼까’ 하는 희망에 부풀어 출근하곤 하였다. 그의 공장은 도강을 하는 밀수꾼을 잡는 경비일도 하였는데, 신철은 도강하는 밀수꾼을 보아주고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6개월 후 국가의 밀수단 속이 강화되면서 밀수꾼들은 사라져 버렸고 동시에 신철의 ‘먹을 알’이 사라져 버렸으며, 신철이 더 이상 그 공장을 다닐 이유도 사라져 버렸다.

신철이 장사를 해 볼까 들어간 두 번째의 직장 역시 기업의 자산이나 화물차를 신철 자신이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헛된 희망을 버리는 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²⁵⁾ 결국 신철이

24) 한생은 一生의 북한식 표현.

25) 신철이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작은 수산물 판매점에 들어간다. 신철이 그 기업소를 선택한 이유는 수산물을 팔고 사는 곳이라 그곳에서 일하다 보면 회사 화물차에 내 집도 올려 장사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가냘픈 희망에서였다. 한 2년간 있으면서 그 희망은 사라져 버렸다. 지배인은 직원 그 누구의 장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규모가 작다 보니 큰 공장처럼 노동자들이 슬쩍 조절할 수 있는 생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선택한 세 번째 직장은 돈을 내고 8.3노동자로 있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신철은 이제 8.3비를 정식으로 내고 본격적인 일당 밀수집꾼으로 나선다. 왜 8.3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신철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게 기업소만 생활해 가지고는 이제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조금씩 돈을 벌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을 운영하고 앞으로 내가 하려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들을 키운 그제 있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절차를 밟고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힘들게 내가 장사를 가도 힘들게 자식을 키우고 돈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온전히 자식도 못 먹이고 이리저리 앓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는 평생을 일을 했어도 국가에서 챙겨 주는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오직 남은 것은 아버지 그제 굽은 허리와 자기 뼈심을 바쳐서 국가 일을 했지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이거는 그렇게 살아서는 8.3을 내고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장사를 8.3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수산물 기업소에서 나오면서 8.3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8.3을 한 거죠.

구술자: 조절할 게 자체가 없죠. 12명이지 그다음 창고는 창고장이 열쇠를 다 가지고 있지 하니까. 조절할 게... 조절한다는 게 이제처럼 미역 국거리나. 미역을 반찬거리로 조금씩 줌... “반찬거리 좀 가져가요” 달라고, 창고장 그렇게 해서 가져가고, 고기 같은 거는 손도 못 대는 거고.

[김화순, “제 4장 공장의 나날들: 작업장 풍경과 인민들의 직장생활,” 박형중 외, 『북한주민의 직장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23), 245쪽].

독자들이 짐작하다시피 ‘공장의 나날들’에 등장하는 신철과 본고의 신철은 동일 인물이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아버지는 평생을 일을 했어도 국가에서 챙겨 주는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다.” 이것이 전쟁부역자인 선조의 오명을 자기 대에서 씻고자 당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살아온 87년생 조선로동당원 신철이 8.3비를 내고 일당노동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게 만든 이유이다. 밀수집꾼이란 어떤 일인가? 밀수집꾼이란 100~120kg이 되는 밀수 짐을 지고 깊은 물살을 뚫고 경비를 피해 한 밤중에 도강하는 위험한 일로 도강 중에 죽는 사람도 허다하다. 다음은 밀수집꾼의 일과이다.

보통 밀수 짐 같은 거는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다. 밤에 자다가 9시에 모여서 밀수 짐 싣는 곳에 가 있으면 집을 하나 정해 준다. 집에 들어가야 짐 실러 나오라 할 때까지 안에서 대기하는 거다. ‘이제는 짐을 져야 돼 나와’ 하면 그게 보통 새벽 아니면 두 시, 세 시. 이때부터 밀수 짐을 져서 새벽 5시 반~ 6시까지 짐을 지는 것이다. 내가 최고로 많이 저본 것은 110킬로그램까지 저 봤다. 체구가 작으니까 약초는 부피가 크니까 못 지겠더니, 구리는 (부피가) 작아서 질 수 있었다.

신철에게 강을 건너는 위험한 밀수집꾼 일을 하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았다.

진짜 물이 이 정도 들어오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무릎 이상 허리까지 와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긴장해야 된다. “넘어지면 일어 못 선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다. 내가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각오만 하고 그냥 건너가는 거다. 넘어지면 돈도 못 벌고 다음부터는 나를 안 써줄 거다. 죽음보다는 돈 벌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섭다. 밀수 짐 지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까지 겪어 보지는 않았다.

물이 무섭게 흐르는 강 한가운데로 들어가면서도 청년의 머릿속은 물에 빠지면 다음부터는 자신을 짐꾼으로 써 주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 ‘저 사람은 다음부터 찾지 마!’ 청년은 자신의 죽음보다 돈 벌 기회가 사라질 것이 더 두렵다.²⁶⁾ 금을 캐는 일도 밀수 짐을 나르는 일도 모두 생명이 위험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인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갈수록 밀수 일은 줄어들고 밀수짐꾼을 해서 받는 인건비는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지만, 청년은 생존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다.

3) 기업소로 들어간 밀수꾼: 주인에서 머슴으로 역전되는 삶

혁철은 운전사의 2남 1녀 중 첫째 아들로 태어났는데,²⁷⁾ 혁철의 집안은 토대에 문제가 있는 평양 추방자 집안이었다. 청소년 시절 혁철은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던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고, 이 일은 청소년 시절부터 남들보다 더 빨리 돈벌이에 눈을 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혁철은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자동차 학교로 가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전문학교를 갔으며 졸업 후 발전소를 1년간 거쳐 건설사업소 돌격대에 배치되었다. 발전소에 들어간 지

26) 사례: 신철, 2023년 8월 14일, 필자 면접.

27) 할아버지는 평양시 임시위원회에서 일하다 재정비리로 6개월간 교화소에 다녀온 후 평양에서 추방되었으며 어머니 역시 얼굴도 보지 못한 오빠가 행방불명자인지라 토대에 하자가 있었다(사례: 혁철, 2022년 1월 26일, 필자 면접).

두 달 만에 혁철은 8.3비를 내고 압록강을 무대로 밀수 일을 바로 시작하였다. 그가 밀수 일을 시작한 2002년경은 고난의 행군의 ‘어혈(blood stasis)’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국경 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밀수꾼이 아직 드물었던 시절이다. 당시만 해도 밀수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밀수는 원래 위험한 일이다. 혁철처럼 토대도 나쁘고 돈도 없고 주위에 혁철의 집안을 봐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밀수를 하는 일은 더욱 위태로웠다. 혁철은 외로웠지만 그렇기에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로지 ‘돈이 있으면 이긴다’라는 생각 하나로 혁철은 돈벌이에 전력을 다했다.

연 아니 뭐 생활을 잘하든지 아니면 좀 돈이 있든지 아니면 토대가 있든지 연줄이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서러운 거네.

북 서럽죠. 서러워 올 때도 있고 이제 서러우니까 뭐 이겨 내야 되고 내가 더 살 때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무조건 돈이 있어야 돈 있으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서(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지금 말하긴 그렇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이제 이제 어느 뭐 계획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내가 이제 돈이 있으면 이제 이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데 그래서 있는 모든 힘을 다 넣으니까

국경 밀수꾼에서 무역회사 운전수로 다시 ‘일공 운전수’로

혁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 동안 국경지역에서 밀수일로 큰 돈을 벌었던 밀수꾼이었다. 세상이 변하고 국경 밀수가 어려워지면서

혁철은 이제 군부 산하 기지에 들어가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기업의 외피를 활용하여 장사하는 것으로 진로를 바꾸기로 하였다. 무역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장의 운전수로 들어가 합법적인 지위를 얻으면서 그의 꿈이 잠시 이루어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회사 사장이 해고되고 군부 산하에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났던 외화벌이 단위들도 정리되면서 혁철은 무역회사 운전수라는 직업 지위는 물론 투자했던 돈까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빈털터리가 된 혁철은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 개인 차주에게 고용되어 운전하는 일공 노동자의 처지가 되었다. 그렇지만 혁철은 과거 밀수로 돈을 잘 벌었던 전성기를 잊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농촌 여성인 고용주가 사람들 앞에서 피고용인인 혁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견딜 수 없었다.

연구자 이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왜 그만두셨어요? 선생님.

구술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0달러씩 받고 하잖아요. 100달러씩 받고 하는데 뭐 100달러 어디다 쓰겠어요?

연구자 한 달 생활비는 안 돼요? 100달러가?

구술자 한 달 생활비는. 생활비는 되겠죠. (중략) 근데 운전을 하면서 100달러를 받으니까 이게 진짜 쓰란 데 없는 거야. 엄마랑 내랑 사는 데지. 나 담배를 피워야 되죠. 담배 피워야 되죠. 술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해서 무슨 그런 아무튼 이제 쓸 돈이 없겠어요? 이제 집에서 좀 집에 생활비 좀 쓰고 하고 나면 뭐 없어요. 그런 데다 가서 이제 그 이제 이제 차주가 이제 농촌 여자예요. 농촌 여자 농촌 여자인데 (중략) 구술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그 고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고용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애네들이 말하자면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머슴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금 말하면 내가 지금 머슴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전에는 내가 머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존심 딱 내려놓으니까 내 환경이 딱 이렇게 됐으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제 좋다 좋다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이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맞추면서 했고 이제 했는데 이제 주인으로서 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고 나는 고용된 사람이니까 무조건 주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예요. 이제 딱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로서는 이제 이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뒤에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좀 자존심 딱 건드려지고

이제 혁철은 돈주로 남을 고용하던 입장에서 거꾸로 개인 차주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이 되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고 머슴으로 주인을 모셔야 하는 의식의 전환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혁철은 결국 한 달 100달러를 받던 일공 운전수 자리를 버리고 무직자로 살아가기에 이른다.

4. 사례 분석: 기층 노동자의 이동경로와 정동

이 논문의 주요 구술자들은 60년대에 출생한 2명의 노동자와 80년대에 출생한 3명의 노동자들, 9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로 일곱 명이다. 6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 임정신과 문길, 80년대생 준마치녀 한영실과 영실의 모친, 청년노동자 신철 그리고 밀수꾼 혁철, 90년대생 문길의

〈표 2〉 연구참가자의 노동이동: 노동력 배치 → 조동 → 이동

번호	출생 연대	젠더	이름	성분	배치	조동	이동
1	50년대	여성	영실모	핵심 군중	교사	교사	장사
2	60년대	남성	한문길	기본	지방산업	군수직장	농사
3		남성	임정신	기본(전쟁)	지방산업	군수직장	농사
4	80년대	남성	이혁철	복잡	지방산업	군부 산하 기지	택시 운전 (피고용인)
5		남성	김신철	복잡	지방산업	지방산업 (밀수일)	8.3노동자 (밀수집꾼)
6		여성	한영실	복잡 (해외)	지방산업	정권기관 (군수)	○ (핸드폰 판매)
7	90년대	남성	한상호	복잡 (교회소)	지방산업 (채취)	×	○

주: 위 이름들 중 한문길, 임정신, 상호는 이복명 작가의 “질소비료공장”에 등장하는 노동자들의 이름을 빌었으며, 영실, 영실모, 상호, 신철 역시 가명임을 밝힌다.²⁹⁾ 이들의 탈북연도는 2023년도 기준 최근 5년 내이다.

아들인 상호이다. 50~60년대와 80~9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들은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의 관계이다. 60년대생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근로자로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10여 년의 경험이 있으며, 2000년대 이후 80년대생들은 시장화 이후 공장에 들어가서 이들은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경험을 공유한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을 버린 기억이다.²⁸⁾

28) 신철의 이야기는 80년대생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연구자: “일당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주의 근로자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내놓는 것은 아니냐?”

2천년대 이후 특수기관이나 군수공업, 정권기관, 일부 중앙기업들에서 식량배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국가는 지방산업공장의 노동자 식량배급의 책임을 기업으로 넘겼다. 그래서, 지방산업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국가가 자신들을 버린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가자 모두는 지방산업 공장의 기층노동자들인데, 이들은 ‘국가의 노동력 배치→조동→노동시장으로 이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이다(표 2) 참조).

일곱 명의 연구참가자들 중 네 명(문길, 임정신, 혁철, 한영실)은 지방산업공장을 나와 배급을 정기적으로 주는 제2경제 산하 군수직장 혹은 노동자에 대한 보수가 좀 더 나은 정권기관 산하 공장으로 조동을 하거나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60년대생 노동자들인 문길과 정신은 농장으로 이동했고, 80년대에 출생한 세 명의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각각 택시노동자, 집꾼, 휴대폰 판매 등의 일을 하였다.

60년대에 출생한 기층 노동자들인 문길과 정신은 고난의 행군 이후 상황을 경험하면서 지방산업공장으로 돌아가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식량배급은 전혀 정기적으로 주지 못하며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며, 이들은 배급을 주는 군수공장을 향해 조동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제는 군수공장조차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량의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해외로 이동하려는 생존전략을 세우게 된다.

신철: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만 있지 받을 권리는 없더라고요. 지켜야 될 의무는 너무 많더라고요. 당에 충성해야 돼. 수령에 충성해야 돼. 기업소에 뭐 바쳐야 돼. 직장에 꼭꼭 출근해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 의무는 많은데 뭐 내가 받을 권리는 없었던 거 같아요.

(사례: 신철, 2023년 8월 14일, 필자 면접).

29) 리복명, 『리복명 단편선집』, 질소비료공장, 조선동맹작가동맹출판사, 1988.

국가가 강하게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뇌물 없이 해외에 나갈 방법은 없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궁지에 처한 60년대생 노동자 한문길은 소토지 농사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제 2차산업 공장에서 나와 농장 노동자가 된다. 교화소에서 나온 노동자 임정신도 공장에 들어가지 않고 무직자로 가족들과 함께 약초채취 등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영위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 정신의 일은 잘 풀리지 않는다. 자신의 장사를 할 만한 자본도 없고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살아갈 특별한 기술도 없다. 정신이나 문길은 노동시장 적응력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결국 정신은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일부 식량이라도 조달하려고 하지만 생명을 연명할 수준의 식량을 얻지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들 60년대생과 80년대생들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관계이다. 80년대생들은 ‘빠심’을 바쳐 공장에 자신의 노동을 무보수로 헌납했다가 국가로부터 버려진 늙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곧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안다. 간부가 될 수 없는 80년대생 기층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으니 더 이상 공장을 다니지 않으려고 하며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결국, 준마쳐녀인 영실도 불법 휴대폰 판매영업 일을 하고, 신철은 밀수집꾼으로 나선다. 혁철은 과거 돈주였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일공으로 일하기를 포기하고 가족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들 80년대생들이 부딪힌 현실은 참혹하다. 영실은 불법장사를 하러 장마당에 나가 보안원로부터 공장에서 보다 더한 진저리나는 욕설과 인격적 모욕을 수시로 받는 상황에 날마다 직면한다. 영실은 공장의 시절들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돌아가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세대에 따른 이동경로의 차이와 정동의 변화를 뚜렷하

게 드러낸다. 60년대 출생한 노동자들(임정신, 문길) 식량배급을 정기적으로 주는 군수공장을 선택하고, 이는 '지방산업→군수직장→지방산업→소토지 농사/농장'의 경로로 이어진다. 60년대 출생한 노동자 역시 국가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80년대생 노동자들과 다르지 않지만 60년대생 노동자 정신과 문길은 노동시장 적응력이 80년대생들보다 더 취약하다. 정신이나 문길은 노동시장의 경쟁 대열에 미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밀려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들의 출신 성분은 기본계층이지만 기업신분의 위계에서 가장 낮은 지방산업공장의 노동자들이다. 간부가 될 만한 '연줄'은 물론 '먹을 알'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 사회주의근로자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렇다고 임노동자나 자영업자로도 살 수 없다. 결국 토지에 매달려 온 가족이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만 자신들이 먹을 식량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산력이 고갈된 토지에서 자신들의 식량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동하는 노동일가의 모습은 근대로부터 퇴행한 시대,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상징한다.

80년대 이후 출생한 노동자들은 아버지를 버린 국가를 불신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³⁰⁾ 80년대생들은 사회주의 근로자와 차별화된 뚜렷한 신노동자 정체성을 지니는가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참가한 60년대생 노동자 두 명의 최종적 이동 결과가 '공장노동자에서 농사짓기'로의 전환인 반면에, 80년대생 세 명의 노동자는 삶의 양식이 보다 다양하다. 떠돌이 일공 한 영실의 '떠도는 삶', 짐꾼 신철의 '생명의 위험 감수하기', 밀수꾼 혁철

30) 70년대에 출생한 기층노동자들의 정체성은 그 중간에 위치할 것으로 여겨지나 본 연구에서 수집한 70년대생 사례는 전부 대졸자 기술자들인지라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다. 후속연구에서 7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이어 가고자 한다.

의 '돈주에서 일공으로 역전되는 삶'이다. 80년대생 노동자들의 이동 결과는 공장 사이를 부유하거나 노동시장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시 공장으로 돌아오거나 경쟁에 밀려나 사회의 밑바닥으로 침전하기도 한다. 닫힌 세계 속에서 30대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부단히 이동하지만 생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공장공동체의 경계선에서 노동력을 소진하고 침잠하는 삶은 오늘날 북한 청년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상징한다.

한영실과 그녀의 떠돌이 일공 동료들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공장에 소속된 채 다른 공장에 임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 부유하기(floating)를 거듭하는 일공. 고기능 노동자이자 일공(日工)인 한영실이 말하는 '물 위에 뜬 깨알'이라는 표현이야말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국가의 지배에 매여 종착지 없이 계속 부유하며 목숨을 연명하는 작은 자들의 정동을 상징한다. 한때 국가와 일체화되어 천리마가 되어 달려온 기층노동자들은 국가의 끊임없는 노동력 요구에 의해 소진되어 버린 채, 생계 해결의 터로서 기능이 무너진 공장과 위험으로 가득 찬 노동시장의 경계선 사이에서 미래 없는 삶을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생산현장의 80년대 출생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거나 부문 간 불법적 이동을 하는 사례를 기술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적 장치는 고난의 행군 당시 만들어져서 지속되어 온 8.3노동자를 두는 비공식적 장치이다. 8.3노동자는 공장 기업의 공식운영 체계 안에 침투되어 노동시장으로 공장 노동자가 배출되는 출구가 되어 공장이라는 공식부문과 노동시장이라는 비공식부문이 연계되고 상호 침투하는 핵심적 장치로 작용한다(신철, 혁철). 영실의 사례에서 보듯이 8.3노동자 외에도 간부에 대한 정기적 뇌물 상납 역시 비

법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80년대에 출생한 노동자들은 원적이 있는 공장 간부에게 정기적 뇌물 상납을 하면서 영실처럼 보다 수입이 나은 공장으로 옮겨 다니거나, 신철처럼 8.3노동과 같은 비공식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들 노동자들의 존재 양상은 신가산제의 전형적 결과물이다. 31) 즉, 8.3노동자라는 비공식성은 공식부문인 국영공장과 기업소의 공적 운영과 상호의존하며 공존한다. 어떤 부문이나에 따라 비공식성의 침투정도도 달라진다. 군수나 중앙산업이나 정권기관 산하이나, 지방 산업부문이나 등에 따라 8.3노동자 제도는 그 운영과 규모가 다른 것으로 보이며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참가자들 중요 구술자 일곱 명이 속한 지방산업공장에서 8.3노동자라는 비공식관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신가산제하에서 국가제도(요원, 간부)와 공민 사이의 상호관계에 의해 불확실성(insecurity)가 존재한다. 간부와 노동자 간의 불확실성은 노동자가 내야 하는 상납금의 차이로 투영된다. 북한 공장 및 당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간부와 노동자의 관계도 열이면 열 모두 다르다. 연줄의 강도나 배후의 권력 크기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미묘하게 조율된다. 그래서 인간과의 사업은 지극히 중요하다. 공과 사는 상호 침투하고 얽히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본 연구의 2차 중요구술자들은 대체로 권력이나 간부와의 연줄이 약한 기층노동자들이었다.

31) 박형중 외, 『북한주민의 직장생활』, 38~42쪽. 신가산제는 Erdmond나 Engel이 주장하고 박형중이 북한 연구에 적용한 것으로서, 신가산제하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 공식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개의 상반된 논리는 상호 격리되지 않고 침투한다.

5. 결론: 닫힌 세계와 순환하는 북한 노동자들

공장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는 일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여 강제화된 국가의 속박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탈’하며 그 이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해 새로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글의 서두에서 ‘공장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주류는 인민경제 산하 지방산업 공장의 8.3노동자들이다’를 본 연구의 중요한 가설로 삼은 바 있다. 공장노동자들이 공장에 배치된 이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8.3노동자’라는 기업-노동자 사이에 합의된 비공식적 제도가 불법을 회피하고 있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중요기술자의 원공장이 모두 지방산업 노동자들이고 연구참가자 중 중앙산업이나 군수공장의 기층노동자가 없어 가설을 완전히 확증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지방산업공장에서 주로 운영되는 8.3노동자 제도가 타 공장 조동에서 노동시장 이동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핵심적 매개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농민들의 경우에 8.3노동자라는 비공식적 제도의 활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앙산업이나 군수, 정권기관 산하 공장에서 운영되는 8.3노동자제도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닫힌 세계에서 노동자는 노동시장을 향해 직진 이동하지 않았다. 공장 사이를 부유하거나 노동시장에서 공장으로 되돌아가거나 직업사회에서 아예 벗어나 무직자가 되었고,³²⁾ 출구가 없는 닫힌 세

32) 대부분 통일 시 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북한 내부의

계에서 노동자들은 순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60년대 출생한 중고령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나가 판매할 노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1차 산업인 채취로 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8.3노동자라는 매개는 이동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을 속박하는 족쇄이다. 그들은 조직에 정기적이고 과도한 상납금을 내야 한다. 이들의 이동 상황을 다음 단계로의 '이행(transfer)'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닫힌 세계 속에서 지향점 없이 '떠날 수도 남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부유와 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행이라기보다는 '먹을 알' 있는 공식 직업지위로부터 배제된 공장노동자들이 8.3노동자에서 비공식 노동시장으로 밀려가는 일종의 생계방식의 단계적 추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많은 영실, 신철, 혁철들이 만들어 갈 북한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닫힌 세계에서 떠돌면서 순환하는 80년대생 노동자들뿐 아니라 북한 기층 민중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공장/기업소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관한 정의와 명칭을 본 연구를 종합한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에서 공장을 나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노동력을 판매하여 살아가는 노동자'³³⁾라고 정의하거나 '주변노동'³⁴⁾으로 정의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이동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 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2017) 이 논문은 탈북 이전 탈북민들의 노동이동을 연구한 사례연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은 국영경제에서 주로 비공식 국영경제나 공식시장경제, 비공식시장경제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북한 남성 연구참가자들은 국영 경제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비공식 국영경제(기업활용형), 비공식 시장경제(장마당형), 공식 시장경제(정권기관형)로 부채살처럼 흩어져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33)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일공)과 혼중성: 혼중, 변동 그리고 경제,” 161쪽.

일하는 노동자 일부에게 해당되지만, 현재 북한에서 공장을 나가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특히, 차문석이 제시한 일공(日工)이라는 용어는 북한 내부에서 보편화된 용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드물게 사용하며 주로 기능이 높은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³⁵⁾

본 연구에서 ‘비공식 노동시장의 노동자’에 대한 호칭 자료를 수집한 결과,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은 뽕뽕이, 짐꾼, 샷별이 등으로 지역이나 하는 일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 특히, 일공(日工)이라는 용어는 ‘공(工)’이라는 용어가 상징하는 바와 같이 주로 제조업이나 공업 분야의 노동자에 한정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판매하거나 스스로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고, 서비스직, 농업 채취, 목축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시장적인 방식으로 유동(流動)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차문석의 일공에 대한 정의로는 이처럼 다양한 범주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없다. 통상, 일공이란 남들이 쉽게 따라 하지 못하는 기술자(예를 들어 변압기 제작공)³⁶⁾를 가리키는 반면, 기술이 없는 막노동자나 금 캐는

34)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155~156쪽.

35) 본 연구의 심사위원 2의 심사문에 의하면, 평양 이남 지역에서 일공이라는 용어가 기능이 없는 노동자일지라도 사용된다. “평양 이남 지역에서도 일반 날꾼팔이를 일공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심사위원의 구체적인 지적에 감사드린다.

36) 1차 인터뷰 대상자. 사례 E(70년생 남자, 교사였으나 8.3노동자), 자신의 직업 지위를 바꾼 40대 남성노동자(2019년 탈북, 2022년 4월 면접). 한영실, 30대 여성 노동자(2020년 탈북, 2023년 10월, 2024년 1월, 2024년 2월 총 3회 면접).

노동자들, 농장에 가서 일당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호칭하는 용어는 없다. 이처럼 일관된 호칭의 부재는 이들이 사회주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담보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공통점은 오로지 가족과 자신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노동이라는 사실로 귀착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생애과정에서 생존을 위해 공식/비공식의 경계선을 오가는 노동자의 노동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경계선 생존형노동자’ 줄여서 ‘생존노동자’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생존노동자³⁷⁾라고 부르는 근거는 80년대생 노동자들의 노동생애를 추적해 본 결과, 공장노동자와 노동시장 노동자의 두 가지 정체성은 현재 분리되지 않은 채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니거나 유동하는 정체성(fluid identity)을 지닌 채 순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신과 가족의 생존에 대한 의지야말로 이러한 정체성 혼돈 과정에서도 이들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동인이다.

이 연구는 공장 노동자들의 개인 노동사를 추적하여 미래 없는 집단적 공장노동의 절망적 상황과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분투 그리고 노동시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노동력을 판매할 출구가 막혀 있는 한계 상황에서 비롯되는 기층노동자들의 좌절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노동자들의 생존 노력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폐쇄된 환경에 의해 좌절하고 있는 현실과 정치권력에 의해 주조

37) 여기서 “생존형 일자리 노동자”는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당장의 생계를 위한 수단이며 이는 경력형일자리(Career)와 대비된다. Huiras, J., C. Uggen and B. McMorris, “Career jobs, survival jobs, and employee deviance: A social investment model of workplace misconduct,”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41, No.2(2000), 245~263.

된 신가산제 시장 안에 간혀 조직생활과 “적(affiliation)”에 결박된 채 어항 속 물고기처럼 부유하며 순환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생애와 내면 세계를 실제 사례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 있다. 앞으로, 북한 민중의 고통에 응답하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접수: 3월 6일 / 수정: 4월 11일 / 채택: 4월 15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질소비료공장,” 『리북명 단편선집』(평양: 조선동맹작가동맹출판사, 1988).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모리스, 로잘린드 C.(Rosalind Elsie Franklin) 엮음,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태혜숙 옮김(서울: 그린비, 2013).

박형중·정은미·김화순, 『북한주민의 직장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23).

조정아·서재진·임순화·김보근·박영자,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Smith, Dorothy E. 『제도적 문화기술지: 사람을 위한 사회학』, 김인숙 옮김(파주: 나남, 2013).

2) 논문

김화순,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2017).

_____, “생존의 정치 I: 북한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평화연구』, 제26권 1호(2018).

_____, “생존의 정치 II: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_____, “선행연구 메타분석: 성찰과 모색 그리고 도전,” 박영자 외,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 이론과 방법론』(통일연구원, 2022).

_____, “제4장 공장의 나날들: 작업장 풍경과 인민들의 직장생활,” 박형중 외, 『북한 주민의 직장생활』(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23).

김화순·신난희·안지영, “계승담론과 직업세습:〈표창〉과 〈북방의 노을〉을 통해 본 김정은 시기 두 공장 이야기,” 『통일인문학』, 제94집(2023).

박민주, “북한 주민과 초상화: 정동 변화와 연결망의 혼종화,” 『북한연구학회보』, 제 27권 1호(2023).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 ‘노동시장’: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제43권 3호(2009).

박형중, “과거와 미래의 혼합물로서의 북한경제: 잉여 점유 및 경제조정기제의 다양화와 7개 구획구조,” 『북한연구학회보』, 제13권 1호(2009).

윤철기, “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9권 2호(2016).

이세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2005).

차문석, “북한의 신노동자 일공(日工)과 혼종성: 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2020).

3) 기타 자료

“통일장관 특보 “북(北)노동자들 중(中)임금체불에 폭동” …中 “알지 못해”(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44352073?site=](https://www.yna.co.kr/view/AKR20240119044352073?site=mapping_related) mapping_related, 연합뉴스, 2024년 1월 19일.

3. 국외 자료

1) 논문

Huiras, J., C. Uggen and B. McMorris(2000), “Career jobs, survival jobs, and employee deviance: A social investment model of workplace misconduct,”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41, No.2, pp.245~263.

2) 기타 자료

“<独自>北朝鮮労働者が中国でスト・暴動数千人規模を初確認 …コロナ禍で賃

金不払い,”『産経新聞』, 2024年 1月 19日,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119-F5K4USURTBP4HK3MCP2IJH6CPI/>(검색일: 2024년 3월 2일).

“中国に派遣の北朝鮮労働者、賃金ピンハネで怒り工場占拠ストライキ… 管理職に暴行で死なす,”『読売新聞』, 2024年 2月 17日, <https://www.yomiuri.co.jp/world/20240217-OYT1T50010/>(검색일: 2024년 3월 2일).

“Leave or Remain?”

Voices of North Korean Factory Workers Who Are Floating in a Closed World

Kim, Wha Soon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choices and adversities faced by North Korean workers who left their factories after 2010, as well as the dilemmas, conflicts, and affection they experience during this proces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8 factory workers in two stages. The results showed that workers in regional industrial factories transitioned into the labor market workforce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8.3 Worker System during their careers. These workers bribed officials of their own factory and exhibited various movement patterns, such as moving between factories, entering the labor market, and returning to their original factory. This highlights the national policies of labor mobility repression, the interdependen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and the downward spiral of livelihoods from ‘formal → 8.3 → informal.’ Consequently, this research proposes calling these workers, who exist simultaneously or fluidly on both sides of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survival job workers'. Through the study of real-life cas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exposing the work lives and inner worlds of workers who, trapped within a neopatrimonial labor world created by political power, swim like fish in an aquarium.

Keywords: North Korean factory workers, labor market, survival job workers, local industries, labor mobility, ilgong, 8.3 workers, peripheral labor